

여수시 '국제 해양 휴양도시' 밑그림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35년까지 중장기 정책 설정 관광특구 지정 등 7개안 마련

'여수시의 꿈'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향한 밑그림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여수시는 지난 19일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2020년에 수립된

'2030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달라진 지역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고, 최신 관광추세를 반영해 2035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관광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 내용은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관광자원 개발 ▲관광특구 지정 ▲축제 및 마이스(MICE)산업 ▲홍보·마케팅 ▲신규 관광·문화콘텐츠 개발 ▲해의 관광객 유치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는 최정기 부시장 주재로 자문위원과 관계공무원, 용역 수행업체 등 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일레븐 브리지 건설 등 여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했다.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은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은 지역과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밑그림을 촘촘히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후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 2025년 5월 중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는 지난 19일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여수시 제공)

'곡성만의 감성' 전파...농어촌 민박 스테이 활성화

75곳 농촌 민박 중 읍내 13곳 곡성스테이 지정...소방 시설 지원

곡성군이 '곡성 스테이'를 확대 운영하는 등 관내 민박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곡성군은 농촌 마을의 일상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곡성읍 시내권 토박이들이 운영하는 로컬 숙소 곡성 스테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총 75곳의 농촌 민박 중 곡성읍내 위치한 13곳이 곡성스테이로 지정됐다.

서편네민박 1호점을 시작으로 다온황토방, 예사랑민박, 누리네민박 등 민박 13곳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곡성군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숙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박 사업자들과 협력해 곡성 스테이를 만들었다. 지자체는 농어촌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박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민박 사업자 75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서비스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곡성만의 특색있는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만습지 용산 탐방로 데크 난간 정비 다음달 9일까지

순천시가 순천만습지 용산 탐방로에 설치된 데크 교량인 용오름길과 갯바람길의 난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순천만습지 용산 탐방로의 데크.

순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을 완료했고, 공사는 8월 21일부터 시작하여 9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 공사는 총 194m 구간의 교량 난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사 기간동안 용산탐방로(출렁다리-보조전망대) 통행이 제한된다. 해당 데크 교량의 난간은 2008년 조성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 및 보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탐방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난간 전면 보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용산 탐방로는 우리나라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을 조망할 수 있는 순천만 용산전망대로 통하는 유일한 탐방로이다. 한편, 현재 용산전망대는 전면 철거 후 신축공사를 올해 9월부터 추진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시민 주도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과제

순천시, 26일 생태비즈니스센터서 에너지전환 포럼

순천시 에너지전환 포럼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다. 순천시 에너지센터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시민주도 에너지전

환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행정·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해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주제 발제로 이윤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지역기반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송경환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의 좌장으로 열띤 토론을 관주관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전환 활동가, 이현세 전주시 에너지센터 에너지전환정책 팀장,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에너지실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농민 건강관리 '농촌 왕진버스' 갑니다

고흥군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난 5월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관내 7개 지역농협이 선정돼 16개 읍·면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협력해 20명의 의료진이 농작업 질한 진료, 한방진료, 검안 검사, 돌보기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월 풍양농협에서 처음 운영됐으며, 5개 지역농협에서도 왕진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은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단순히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협·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보성군 '저상형 청소차' 도입 안전 강화

보성군이 최근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3대를 도입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시 기존 청소차의 안전사고 우려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하게 됐다. 21일 밝혔다.



보성군이 도입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이로써 지금까지 총 2대(쓰레기 수거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각 1대씩)가 운행되던 군의 저상형 청소차량이 총 5대로 늘어나 환경공무직의 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청소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별도 탑승 공간이 없고, 탑승 시 높은 발판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위험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승·하차 시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폐기물 적재함 사이에 별도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 차량 주변을 360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유압 안전장치 등을 갖춰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무더위 날리는 이웃 사랑

'헌혈'로 생명 나눔



여수시도시관리공단·농협 임직원 헌혈문화 정착 위한 헌혈봉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이하 광주·전남 혈액원)과 공동 주최한 '사랑나눔 헌혈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사랑나눔 헌혈봉사'는 관리공단과 여수농협이 혈액원과 연계해 지역 내 혈액 수급난 해소와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전개됐다. 지난 19일 여수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갖게된 이번 봉사는 공단과 여수농협의 임직원,

여수시민 등 다수의 참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한 시민은 "헌혈을 통해 이웃을 돕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유하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목표의식을 되새길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소외이웃에 '사랑의 쌀'



화엄사, 구례군에 100포 기탁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가 백중(음력 7월 보름날)을 맞이해 이웃사랑 물품으로 친환경 쌀 100포(1,000kg)를 지난 18일 구례군에 기탁했다. 이날 화엄사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화엄사 덕문 주지 스님과 구례군 이길용 부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 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서 덕문 주지 스님은 "신도들과 심시 일반 모든 사랑의 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군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길용 구례군 부군수는 "매년 자비 나눔을 통해 우리 군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화엄사에 감사드립니다"며 "배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